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배포시부터 보도 가능</h2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	
책 임 자	최용호 과장 (02-2156-9750)	담 당 자	윤동욱 사무관 (02-2156-9671)
배 포 일	2015.8.27(목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11대

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위한 제 목 : 「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」 발표

- 금융위원회는 "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(6.8.)"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「기술금융 개선 추진단 회의」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을 논의
- ① **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위한 「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」 발표**
 - '16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실시 (요건 충족시)
- ② **'15.7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실적 집계**
 - '15.7월 중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기업에 신규 또는 증액된 대출 규모는 2.2조원
- ③ **기술신용평가 체계 개선 추진현황 점검**
 - 초기기업 7일 이내 평가 및 모든 평가대상 기업에 대해 해피콜 실시

I. 개최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'15.8.27.(목) 18개 은행 기술금융 담당 부행장이 참석하는 "제1차 기술금융 개선 추진단 회의"를 개최했음

【회의 개요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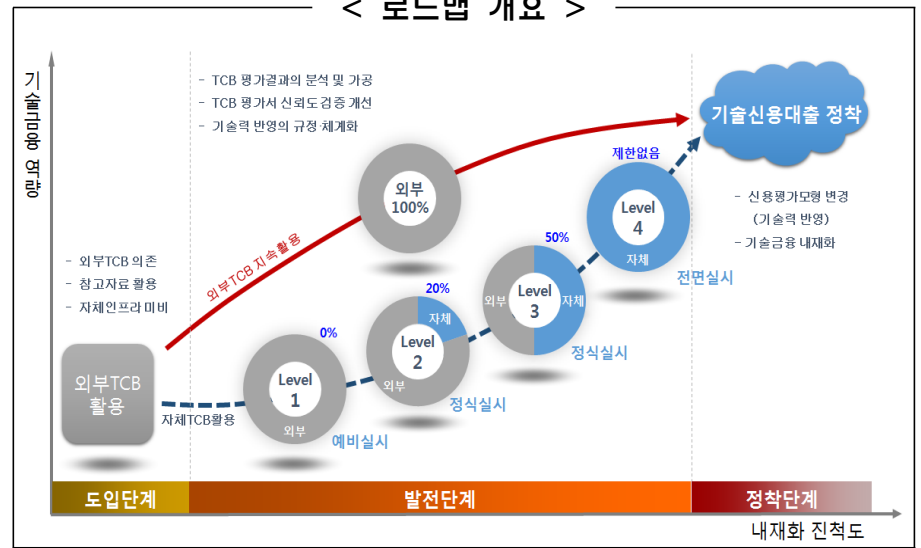
- (일시) '15.8.27.(목) 10:00 ~ 12:00
- (장소)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(참석)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(주재), 금융감독원 중기지원실장, 18개 은행 기술금융 담당 부행장 등

-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.8.(월) 발표한 「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」 대책의 주요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

II. 주요 후속조치

가

은행의 자체 TCB평가를 위한 「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」 발표



1. 추진 배경

-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정착의 일환으로서 자체 기술신용평가(이하 "TCB평가")를 실시하려는 은행의 이행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
- 단계별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 및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

2. 주요 내용

- (구성)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총 4단계로 하여 은행이 체계적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
- 예비실시 단계(레벨1) → 정식실시 단계(레벨2,3) → 전면실시 단계(레벨4)

- (단계별 실시요건) ①전문인력 수, ②평가서 수준, ③실적요건(직전 단계 실시기간), ④기타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를 결정

< 참고 : 세부 실시요건 >

- ① (전문인력 수) 현행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 승인기준*을 준용하여 평가 전문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

항 목	예비실시	정식실시		전면인정
	Level 1	Level 2	Level 3	Level 4
전문인력 수	5명 이상	10명 이상	15명 이상	20명 이상

* 자연계 박사, 변리사, 기술사 3년 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 및 기술평가업무 종사경력자 등

- ② (평가서 수준) 자체 작성한 평가서에 대한 심사* 결과, 70점 이상 (레벨4는 80점)인 평가서가 일정 비율 이상

항 목	예비실시	정식실시		전면인정
	Level 1	Level 2	Level 3	Level 4
평가서 수준	70점이상 60%	70점이상 70%	70점이상 80%	80점이상 80%

【자체평가 역량 심의위원회 구성(안)】

- (구성) 은행연합회장이 2년 임기의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은행연합회 기술정보부장(TDB)을 간사로 함
- (외부 위원)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전문가를 추천받아 5인 이상으로 구성

- ③ (실적요건) 자체 TCB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 노하우 축적을 위해 직전 실시단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자체 TCB평가를 실시

항 목	예비실시	정식실시		전면인정
	Level 1	Level 2	Level 3	Level 4
실시 기간	-	(Lv1) 6개월	(Lv2) 6개월	(Lv3) 1년

- ④ (기타 물적 요건) 자체 TCB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 전담조직, 자체 평가모형, 전산화, 정보 집중체계 등을 구축

- (운용방안) 자체 TCB평가 역량 심사는 반기별로 매년 1,2월 및 7,8월에 실시되는 기술금융 실적 평가(TECH평가) 심사와 함께 실시

- 심사결과는 매년 2월말 및 8월말에 TECH평가 결과와 함께 발표

※ 은행의 자체 TCB평가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제1차 심사는 '16.1~2월 중 실시하여 '16.2월말 결과 발표

- (인센티브) 은행의 기술금융 역량 확충으로 자체 TCB평가 실시 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

- (레벨2) 해당 은행의 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의 20%

→ (레벨3) 상기 금액의 50% → (레벨4) 제한없음

※ TCB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해 평가인원당 자체평가 건수는 제한
- 평가인력(전문+양성) 1인당 최대 월 10건의 자체 TCB평가를 인정

- TCB평가 업무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 소요기간 단축 및 평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

3. 기대 효과

- ◆ 「외부 TCB 평가 → 자체 평가 → 중소기업 신용모형 개선」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中企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것으로 기대

- '16년 하반기부터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이 실시되어

* 주요 시중은행은 '16년 상반기 중 예비실시 단계(레벨1)를 거쳐 하반기 중 정식실시 단계(레벨2)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

- 동 기간 중 약 1.5조원 규모*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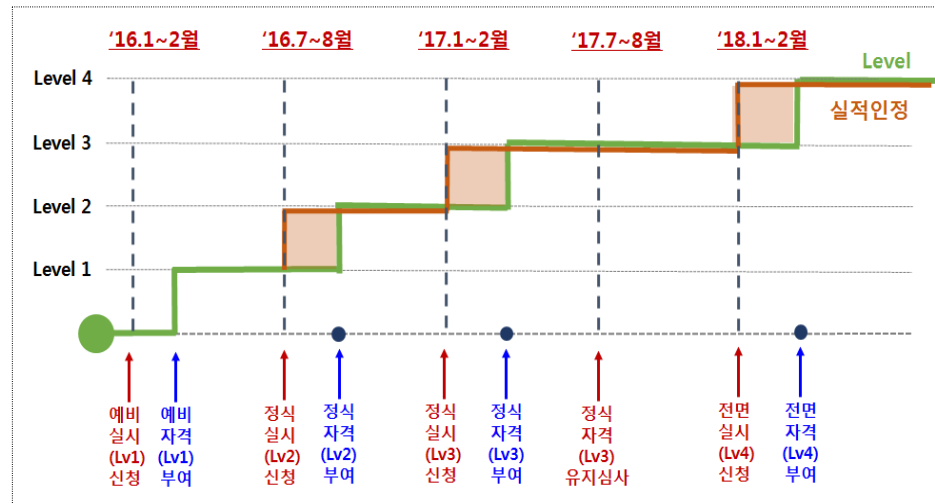
* '16년 하반기 예상 기술신용대출 규모 약 10조원 중 15% 수준

- '17년에는 약 5~10조원 규모*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기대

* '17년 예상 기술신용대출 규모 약 20조원의 25~50% 수준

- 이르면 '18년부터 일부 은행이 전면 실시단계(레벨4)에 진입하여
 -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

< 은행 자체 TCB평가 정착 과정 >



- 은행의 자체 TCB평가가 활성화되어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,
 - '20년 이후에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중소기업 여신심사 전반에 적용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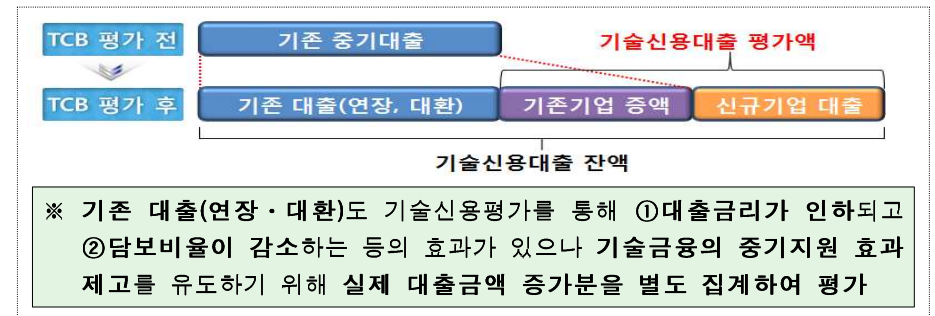
※ 바젤II에 따라 은행 내부등급법 변경은 5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 및 검증이 필요 (기술금융 관련 데이터 축적에 필요한 기술신용대출은 '14년 하반기부터 개시)

나 '15.7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실적 현황

1. 그간 경과

-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의 중기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이 없는 “무늬만 기술금융”을 방지하기 위해
 - '15년 하반기부터 기술금융 실적 평가(TECH평가)를 기존의 기술신용대출 잔액 뿐만 아니라
 - 신규기업 대출 및 기존기업 증액분을 합산(기존 대출의 연장·대환 제외)한 “기술신용대출 평가액”을 별도 집계하여 평가하기로 발표
- * 「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」('15.6.8.)

< 기술신용대출 잔액 및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개념 >



2. 기술신용대출 실적 현황('15.7월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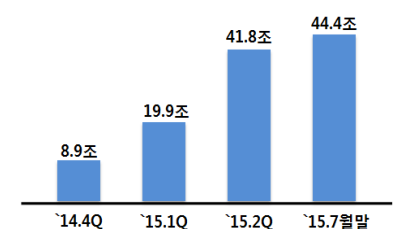
- (잔액) '15.7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('14.7.~'15.7., 13개월간)은 44.4조원

- '14년 7월부터 '15년 6월까지 1년간 41.8조원의 자금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에 공급

* ('14.3Q) 1.8조원 → ('14.4Q) 7.1조원
→ ('15.1Q) 11조원 → ('15.2Q) 21.9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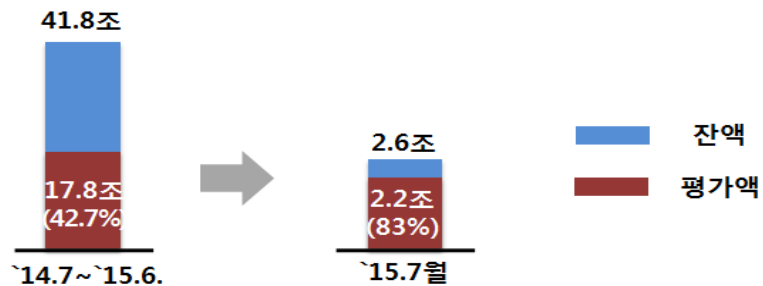
- '15.7월 중 기술신용대출은 26조원 규모

< 기술신용대출 잔액 추이 >



- (평가액) 새로운 실적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'15.7월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2.2조원으로 동 기간 전체 기술신용대출(2.6조원) 대비 83% 수준
- 특히 지난 6월 대책 발표 이후, 전체 기술신용대출 잔액 중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의 비중이 크게 증가 (40.3%p↑)

<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추이 >



-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자금지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3. 향후 전망

- '15년 중(1~7월, 7개월간)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공급규모는 15.3조원으로
- 연말까지 약 26조원의 기술신용대출이 신규대출 또는 기존대출 증액의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
 - '15년 기술신용대출 공급 전망치인 20조원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기대
- ※ 기존 대출의 연장·대환을 포함한 기술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'15년 기술신용대출 공급 전망치인 20조원을 既 달성
- '15년 중(1~7월, 7개월간)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5.5조원
- 앞으로 은행연합회 및 기업금융나들목 홈페이지의 「기술금융 종합상황판」을 통해 매월 기술신용대출 잔액과 평가액을 함께 게시할 계획

다

기술신용평가 체계 개선 주요 추진현황

1. 초기기업에 대해 서류 완비 후 7일 이내 평가 완료

- '15.9월부터 초기기업*에 대한 표준평가시 은행이 TCB에 요청하는 경우 既신청된 건보다 우선적으로 평가 실시(Fast track)
 - * 초기기업 : 업력 7년 이내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이하인 기업
- 우선평가 신청시 서류완비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평가결과 완료 및 은행 앞 제공
- 전체 평가대상 기업의 약 20% 이상이 우선평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* 평가 대상기업 중 초기기업 비중 : KED 19.9%, NICE 25.4%, 이크레더블 29.0%

2. 모든 평가기업 대상 기술신용평가 전·후 유선 안내(해피콜) 실시

- '15.9월부터 TCB사는 모든 평가기업에 대해 기술신용평가 전·후 각각 1회씩 유선 안내(해피콜)을 실시
 - * (현장실사 전) 평가자, 평가절차, 필요자료, 현장실사를 위한 방문시기 등을 안내
 - * (현장실사 후) 평가자 전문성·윤리성·부당행위 여부 확인 및 평가 진행상황 안내

3. 평가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실사 실시

- 신속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해 “현장실사 전 필수자료”를 최소한으로 선정하여 해당 자료만 접수되면 바로 현장실사를 실시(실시 중)

【현장실사 전 필수자료】

- 기술개요표, 정보제공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주주명부, 재무제표
(기업이 은행에 기제출한 자료는 은행이 TCB에 사본 제공)

- ※ 기타 평가 전 제출 필요자료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장 관련 자료(부동산등기부등본, 임차계약서), 부가세자료, 기타 기술자료(산업재산권, 인증·수상실적 등) 등

Ⅲ. 향후 계획

- 「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」 대책 후속조치 중 '15.4분기 이행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(시기별 발표)

* (10월) 투자형 TCB 모형 개발, (11월) 기술금융 전문 자격증 체계 수립
(12월) TDB 정보체계 개편

-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기업 설명회, 은행권 관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알리고 정책 효과를 확산시킬 계획

<참고> 보도자료 관련 Q&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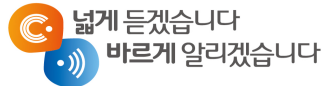
【별첨①】 「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」

【별첨②】 「기술신용평가 체계 개선 추진현황」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참 고

보도자료 관련 Q&A

<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>

1. 은행의 자체 TCB 평가 기반 기술신용대출은 언제 처음 실시되는지?

- '16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이 실시

-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총 4단계*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은 2단계부터 가능

* 예비실시 단계(레벨1) → 정식실시 단계(레벨2,3) → 전면실시 단계(레벨4)

- 자체 TCB평가 실시 2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'16.1,2월 중 있을 자체평가 심사를 통과하여 6개월간 1단계를 거쳐야 함

2. 은행의 자체 TCB 평가 가능 여부는 어떻게 심사하는지?

- ①전문인력 수, ②평가서 수준, ③실적요건(직전 단계 실시기간), ④기타 물적 요건의 4개의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가능 여부를 결정

- 자체 TCB평가 역량 심사는 반기별로 매년 1,2월 및 7,8월에 실시되는 기술금융 실적 평가(TECH평가) 심사와 함께 실시하며

- 자체평가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전문가를 추천받아

- 2년 임기의 외부 심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

* 은행연합회 기술정보부장(TDB)을 간사로 함

3. 은행의 자체 TCB 평가를 실시하면 기존 TCB사가 타격받지 않는지?

- ☐ 기술신용대출의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향후 정부 조달·R&D·기업 인증 등 대출심사 외에 TCB 평가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
 - 또한, 인력 수급·경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은행이 자체 TCB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며
 - 자체 TCB평가를 실시하는 은행도 평가의 난이도, 보유 인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TCB사의 외부 평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
- ☐ 따라서, 기존 TCB사가 은행의 자체 TCB 평가 실시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

<기술신용대출 평가액>

4. 기술신용대출 잔액 중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이 아닌 금액은 “무늬만 기술금융”에 해당하는지?

- ☐ 기술신용대출 잔액 중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이 아닌 금액은 기존기업 대출의 기간 연장 또는 대환에 해당
- ☐ 기존 대출의 연장 또는 대환은 신규대출이나 기존대출 증액처럼 대출 금액의 증가는 없지만
 -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, 금리가 인하되거나 담보 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되는 등 기술금융의 혜택을 받음
- ☐ 다만,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자금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“기술신용대출 평가액”을 별도 집계하여
 -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증액을 확대하려는 것임

* '15년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 평가(TECH평가)부터 기술신용대출 규모 및 차주수 지표를 “기술신용대출 평가액”을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